

[사회]

金보다 값진 감동에 격려 물질 올림픽 관전 문화 달라졌다

‘갈비뼈 골절’의 고통 속에서도 은메달을 딴 유도의 왕기춘. 다리에 경련이 일어 쓰러지면서도 바벨을 놓지 않았던 역도의 이배영. 두 사람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음에도 ‘올림픽 영웅’으로 불린다. 그동안 1등에게만 찬사를 보내던 한국의 고질적인 올림픽 응원문화가 바뀌고 있다. 선전을 하고도 노메달에 그친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좋은 기량과 멋진 매너를 보여준 상대 선수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새로운 관전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2등... 꼴찌... 상대선수에게도 아낌 없는 박수갈채

◇은메달, 노메달도 팬찬아=역도 69kg급 경기에 출전한 이배영(29·경북개발공사)은 올림픽에서 따지 못한 금메달을 국민들이 직접 목에 걸어준 경우다. 이 선수는 지난 12일 경기에서 갑자기 왼쪽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용상 3차 시도를 모두 실패해 실격당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넘어지면서도 바를 놓지 않은 이배영의 모습을 중계를 통해 지켜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그에게 열띤 박수를 보냈다. 지난 11일 남자유도 73kg급 결승에 나섰다가 13초 만에 한판으로 패한 왕기춘(20·용인대)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격려가 쏟아졌다. 경기 다음날에는 수만명의 네티즌들이 왕 선수의 미니홈피를 찾아 은메달 획득을 축하했으며, 왕 선수도 “국민들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작은 여객객’ 남현희(27·서울시청)도 같은 날 펜싱 여자 플뢰레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발렌티나 베잘리(34·이탈리아)와 접전 끝에 한 점 차이로 아깝게 패했다. 하지만 수만명의 네티즌들은 경기 직후 남 선수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4초를 남겨놓고 역전패를 당한 그를 위로했다. 153cm 단신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세계 최강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남 선수가 딴 은메달은 금메달 못지않은 성과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선수와 비인기 종목에도 박수 갈채=갈땀만 뻘뻘한 한국 국민의 성원을 받는 외국선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유도 남자 60kg급의 최민호(28·한국사회)와 결승전을 치른 루드비히 파이어(27·오스트리아, 세계랭

킹 1위인 파이어는 지난 9일 열린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울고 있던 최 선수를 일으켜주고, 손을 들어 올려 주는 등 승리를 축하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경기에서는 졌지만 훌륭한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을 보여준 파이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네티즌들은 몇 년 외도까지 갖춘 파이어를 ‘훈남’으로 부르며, 너도나도 팬카페를 개설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올림픽 7연패 행진을 이어가지 못한 여자 양궁 개인전 출전 선수들에 대한 칭찬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2위와 3위에 그친 박성현, 윤옥희 등 선수들이 한국의 금메달 행진을 저지시킨 장귀안귀안(27·중국) 선수에게 보여준 성숙한 매너 때문이다. 사람들은 중국 관중의 매너 없는 응원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내던 올림픽 응원이 꼴찌는 물론 상대선수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숙한 관전 문화로 바뀌고 있다.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루드비히 파이어, 이배영, 왕기춘, 최민호, 남현희, 유도의 은메달을 딴 유도의 왕기춘, 불리한 신체조건을 극복하고 은메달을 획득한 펜싱의 남현희,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뒤 격려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최민호를 일으켜 세우는 오스트리아 루드비히 파이어 선수. /연합뉴스

장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해주는 모습 보고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금메달 유망 종목 위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는 방송국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방송사들이 왕기춘 선수의 은메달 시상식을 중계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고, 금메달 가능성이 없는 비인기

종목도 중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김홍식 교수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개발시대의 잔재인 ‘1등 주’의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다”며 “2등과 3등의 항의가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화가 스포츠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고·창의력 교실, 학원 아니다”

대법 “등록의무없다” 판결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교육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3~2006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건물에 강의실 5개를 설치하고 ‘브레인스쿨’이라는 상호로만 18개월에서 초등1년생까지 아동 140여명에게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수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교육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육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브레인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 전달이나 기능·예능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해 시행령이 정한 교육과정 중 유사한 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육과정이나 그와 유사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학원 아니다”며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탐방객들에 아름다운 선을 선사

‘숲속음악회’ 내일 20번째 공연

무등산 탐방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여왕 광주’의 이미지를 다져온 ‘무등산공원 숲속음악회’가 오는 17일 루드비히 파이어를 맞아 20번째 공연을 갖는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원호사지구 공원관리사무소 앞 잔디광장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열고 있는 ‘무등산공원 숲속음악회’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오는 17일 스무 번째 공연을 갖는다. 이번 음악회에는 무료봉사 공

연단체인 ‘황선복과 소리내는 사람들’이 1시간30분동안 ‘서머 타임(summer time)’, ‘베사메루초’ 등 경음악과 관소리, 가요 등을 들려준다. 숲속음악회는 지난해 기자가 동차 사내 음악동호회와 광주시청 색소폰동호회 등의 참여로 시작됐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광주 이미지에 걸맞은 공연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러시아 연해주서도 광복절 기념식



아리랑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보호)은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시 이상설 유허비 앞에서 우스리스크시 관계자와 고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제공>

광주·전남 곳곳서 광복절 기념 행사

광복절인 15일 광주·전남에서 광복 63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을 기리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민회관에서 박광대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독립유공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경축식을 마친 뒤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민주의 종’ 타종식을 갖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시 새마을회 등도 이날 시내

이에 앞서 광주공원 현충탑에서는 각급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식이 진행됐으며, 전남도 14일 밤 상무지구 5·18기념분회에서는 ‘진야음악제’가 열렸다. 전남도는 15일 오전 도청 강대중강당에서 박준영 지사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도는 청사 외벽에 가로 20m, 세로 60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내걸고 청사 주변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해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광주시 새마을회 등도 이날 시내

곳곳에서 독도 지킴이 서명운동과 태극기 보급 및 게양운동 등을 펼쳤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만들기 체험행사, ‘도전! 역사 퍼즐 행사’가 열렸다. 한편 광주 공산구는 오는 18일 송정5일장에서 독립만세 퍼포먼스, 태극기 그리기 등 광복절 기념행사를, 광주시는 오는 20일 강대중컨벤션터에서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생활 게시판

부음

▲임현임씨 별세 김병호·병석·병만(자영업)·미옥(·)·순희·희옥씨 모친상 심창일(개인사업)씨 빙모상=발인 16일(토)

송정장례식장. 062-941-7101. ▲김현규씨 별세 증범(광주불교방송 기자)·중준·남옥씨 부친상 박용수씨 빙부상=발인 17일(일) 황동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20-6983. ▲조태영씨 별세 김명숙씨 상배 총화씨 부친상 이상선씨 빙부상=발인 17일(일)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영양·모임·매일·매매·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 (062)227-9600
문의: (062)220-0553
FAX: (062)227-9500

산행 안내 광고는 12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이형일
TEL: 0610334-4100
FAX: 0610334-9010
C.P.: 011-8603-0456
남평 대리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효율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선별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건축상판
청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원역지개발지구
신창역지개발지구
전용 가능한 임대물
우량임야
건물매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실무력 향상과정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2008년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1. 교육목표
2.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3. 강의요일 및 시간
4. 교육기간
5. 교육과정
6. 원서교부 및 등록시간

임대
임대 총 권장 업종
지하 2층 (구, 삼복서점)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및 헬스클럽
자상 4, 7층 일부 병의원, 사무실
위치: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연락처: 에이취에이취개발(주)
☎ (062)412-6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1. 분묘개장일: 2008. 8. 16
2. 분묘개장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3. 분묘개장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4. 분묘개장비용: ...
5. 분묘개장방법: ...
6. 분묘개장대상: ...
7. 분묘개장신청: ...
8. 분묘개장문의: ...

주유소매매
· 화순읍내 국도변 25mX10m코너
· 대지 1,186㎡ 건물 47㎡(에노피옴 2층)
· 탱크 180D/M 4기, 주유기 5기
· 매가 11억5천만원(음식4억(현포함)조정가능)
☎ 011-413-6051 (주·아)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투자유량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 ~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